

실천하는 행정력 '주목'

멈추지 않는 열정의 고삐 '바짝'

임실군의 무한질주는 여전히 현재형이다.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로 이어진 '심민 호'는 멈추지 않는 열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어느덧 민선 7기가 출발한 지도 일년 째. 함께하는 희망농업과 활력있는 지역경제,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품격있는 교육·문화의 4대 기조 속에 임실군의 행동하고, 실천하는 행정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예산안 최초로 4천억원대 예산을 달성한 데 이어 5천억원 예산시대를 향해 내달리고 있다. 특히 노인무로 목욕권과 천원버스 등 효심행정으로 대표되는 심민 군수표 행정은 2019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주민만족도 1위를 차지할 만큼 그 진가를 발휘하며 전국이 주목하는 지자체로 발돋움했다.

심 군수는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에도 믿고 맡겨주시는 임실군민을 위해 행동하고 실천하는 행정력을 발휘하겠다"며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들어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N치즈 축제

▲5000억 예산시대 발판 마련
임실군은 민선 6기 3년 연속 4000억원 예산시대를 열었고, 올해 첫 본예산 4000억원대에 돌입하며 5천억원 예산시대 도약을 위한 튼튼한 발판을 다졌다. 민선 6기부터 이어진 '심민 행정'은 불안정했던 임실군정을 안정화 시키며, 민선 7기는 가시화되는 성과들을 바탕으로 주민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고 있다.

민선 7기 일년차를 맞은 올해 본예산은 1회 추경 현재 4396억원으로, 연말 결산추경까지 이어지면 5천억원대 돌입도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올해 국가예산 역시 1천억원대를 달성했으며, 상반기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고부세 확보했다. 국가공모사업도 역대 가장 많은 사업이 선정됐다. 특히 지난 해에는 총 40건에 594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총 15건에 127억원대 공모사업을 따냈다.

대표적인 공모사업은 임실치즈마을을 농촌 테마공원 조성(총 97억원), 기초생활거점육성(관촌,성수, 총 80억원), 오수 공공동물장묘시설(총 50억원), 임실군노후상수관망 정비(총 308억원)임실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총 300억원) 등이다. 올해의 경우 농촌신활력플러스(총 72.5억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총 44.3억원), 지역수요맞춤지원(총 55억원)을 비롯, 임실 이도지구 병목지점 개선 타당성 용역 1억원이 국회단계에서 반영되는 성과를 이뤘다.

▲농식품 융복합 강화... 농축산업 활력
임실군은 농업의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첨단 농업으로의 전환과 신소득 특화작물을 적극 발굴 육성해 준비

는 농업, 함께하는 희망농업을 실현하겠다"며 "농산물 가공식품을 확대하고, 농업환경을 개선해 4차 산업혁명 기술시대에 맞춘 농업혁신성장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로컬푸드와 귀농귀촌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농업농촌협력과 육성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농식품 융복합산업" 확대와 스마트 첨단 농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농가 소득안정 및 새로운 농촌활력을 창출했다. 이를 위해 임실N양념산업과 임실N과수 융복합 사업 등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있다.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농촌 고령화 농촌사회 여건에 맞게 농업인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민선 6기 때부터 시행해 온 농업인 월급제와 고령 영세농 영농경영비 지원, 벼 병해충 항공방제 등을 확대 시행해 농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유통체계 확산 및 마케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APC 중심의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출하농가 최저 수취를 보장했다). 젊은 인구의 임실 정착을 유도하고, 지난해 공모에 선정된 임실N로컬푸드유통센터를 구축한다. 유통망 확충을 위한 전략품목 농산물 통합 포장재 개발도 전개 중이다. 축산분야에서는 갈수록 빈번히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구제역의 상시 방역체계 확립을 위해 거점세척 소독시설을 신축하고, 한우 암송아지 입식우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축산농가들의 고충과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과 귀농플랫폼 및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귀농·귀촌 정착지원 등 누구나 와서 행복하게 농사지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육정호 현장행정

▲500만 관광객, 명품관광벨트 기틀 확고
민선 7기 임실군을 주도할 '500만 관광시대'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육정호권역 생태관광 특화-임실N치즈의 세계화-성수산 산림휴양 강화-오수 반려동물 거점 조성으로 이어지는 명품관광벨트 구축을 가시화 시켜 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먼저 육정호 명품생태관광기반 구축이다.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280억원)과 육정호 물문과 돌레길 조성(50억원), 육정호 마실길 생태대 조성 사업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고려·조선의 건국설화의 역사적 가치를 가진 사이암과 성수산 왕의 숲과 태조 희망의 숲 조성, 성수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도 착착 추진 중이다. 전국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마을에 세계적 장미원을 조성, 봄에는 장미꽃과 함께하는, 가을에는 국화꽃과 함께하는 임실N치즈축제를 열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오수의견광광지를 연계한 반려동물테마파크와 반려동물산업을 집적화 사업도 한창이다. 지난해 사업비를 확보한 오수 공공동물장묘시설 설치와 오수 제2농공단지를 반려동물산업특화 단지로 만들어 간다.

▲임실N치즈·임실N치즈축제 위상 강화
지난해 네 번째로 개최된 임실N치즈축제는 35만명의 관광객 유치와 함께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유망-우수축제와 전북도 '최우수축제'에 선정되는 등 명실공히 국내 대표축제로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

올해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펼쳐지는 '2019 임실N치즈축제' 역시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축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또한 임실N치즈는 6년 연속(2014년~2019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선정됐다. 임실치즈테마파크는 대한민국 대표 체험관광지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임실치즈테마파크 대표관광지 육성사업과 임실치즈마을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착착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임실치즈테마파크 세계적 장미원 및 임실치즈팜랜드 관광기반 조성사업, 임실N치즈 6차산업화 지구조성, 임실치즈식품 클러스터 운영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제2농공단지 분양계약

5000억 예산시대 도약 발판 올 상반기 15건 공모사업 확보
농식품 융복합산업 확대
육정호 생태관광 특화 연계
명품 관광벨트 구축 가시화
임실N치즈축제 위상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선도도

이외에도 축제의 아이콘 임실의 명성이 절맞게 지난 2월 평봉정월대보름 축제가 열렸으며, 5월 의정문화제도 성공리에 개최됐다. 여름에는 아쿠아페스티벌이, 겨울에는 임실산터축제가 열리며 세계적 관광 명소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농촌신활력 사업 등 농촌중심지 활성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선정을 계기로 자립적 지역발전기반을 구축했다.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비롯하여 농촌신활력플러스 센터 리모델링, 임실N농특산물유통센터 구축, 임실N치즈카페 대도시권 확대 등에 탄력이 붙었다.

또한 농촌중심지활성화(임실, 청용, 강진, 삼계)와 기초생활거점육성(성수, 관촌)은 물론 농촌 풍수에 위험생물종 종합정비 사업비를 확보하고, 전 주민 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농촌 거점 경쟁력 강화 및 재난 예방을 통한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했다.

군민 모두가 활기차고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인프라 구축하여 여가·건강활동 지원, 지역활력 및 생활안전·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SOC시설을 구축사업이 한창이다. 관촌 체육문화센터 건립과 다목적체육관 건립,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 임실공공도서관 건립,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임실군 파크골프장 조성 등이다.

지난 3월에는 일진제강(주) 임실 제2농공단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00여원을 투자해 2021년까지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효심복지 우수모델, 치매국가책임제 선도
"효심복지"를 위한 다양한 특수시책을 펼치며, 주민편의의 도모와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는 복지정책을 대폭 확대 시행했다.

갈수록 심화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마무리 중이고, 노인일자리 확대와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목욕쿠폰 지급 등 다양한 효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6월에는 정신건강 복지센터 및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여, 치매예방 및 치료에 적극 나서는 지자체 모델을 만들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맞춰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통합관리 서비스를 구축한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실사랑 상품권도 지급한다. 맞춤형 서비스 급여 제공과 다문화 가정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특색 있는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민선 7기 대표공약사업인 대상포진 접종 지원사업도 전개하여 군민들의 의료서비스를 확대, 전개한다. 아울러 출산장려를 통한 인구증대를 위해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및 산후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지난 해 1월에 개원한 임실봉황인재학당을 기반으로 도시 부럽지 않은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애학장학금 확대지원과 봉황인재학당 학원 위탁 프로그램운영 등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어주며, 교육복지 1번지 임실을 앞당기고 있다.

또한 올해에는 임실군수 관사를 근로자의 영유아 자녀를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으로 건립하는 공모에 선정, 아이키우기 좋은 임실군의 이미지를 한층 높였다.

/임실=진홍영 기자

인터뷰 심민 군수

"더 새로운 임실 위해 한발 앞설 것"

심민 군수는 민선 7기 2년차를 맞은 올 하반기에는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들어 가기 위해 육정호 주변 관광지 개발 등 10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화된 사업을 추진한다.

심 군수는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에도 지역주민들의 성원과 지지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행정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올해는 본예산 최초로 4000억원을 넘어서며 탄탄한 재정력을 확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맞춤형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심 군수는 올 하반기에는 지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육정호 주변 관광지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지난 해 사업비를 확보한 풍수에 위험 생활권 종합

정비와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조성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심 군수는 "반려동물 산업의 거점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지&치매안심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임실 행복나눔센터, 임실군 노인복지회관, 청용면 복지회관 등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주민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초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군 단위)에서 주민만족도 부문 1위를 차지할 만큼 복지 정책

에 남다른 인정을 받고 있는 심 군수는 "효심복지를 위한 다양한 특수시책을 특성화하고, 주민편의와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특색있는 복지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목욕권이 없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목욕권 13장을 지급하는 것과, 단돈 1000원이면 어디든 다닐 수 있는 버스단일요금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는 임실사랑 상품권을 지원하고, 첫째아이부터 300만원을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산후 3개월까지 산모와 신생아들을 위한 출산산후 건강서비스 비용도 지원하는 등 출산육아 정책에도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

심 군수는 "민선 7기 남은 3년도 오로지 지역민을 생각하며 열심히 뛰겠다"며 "더 새로운 임실과 군민이 다함께 행복하고 더 잘사는 일상의 변화를 실현하는 한발 앞선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